

#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항의 시위… “민중기 특검에 경고”

광화문 특검사무실 항의 방문  
송언석 “당원 명부 털겠다는 건  
당원 전체를 범죄자로 본다는 것”

특검, ‘최소한의 명부만 요청’ 입장  
국회 찾아 자료제출 관련 협의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18일 광화문 특검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중기 특검 광화문 사무실 인근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검은 2023년 통일교가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로 수사관을 지난 14일 보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당원 전체 명부를 요구했다고 주장하지만, 특검은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최소한의 명부만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8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앞에서 현장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야당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있음에 따라, 반탄과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자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각각 당사에서 농성하거나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권의 행동대장 민중기 특검에 경고한다. 지금 특검은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범죄 행위와 무관하게 수백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갔다는 압수수색은 이 특검의

영장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형사소송법 215조 포괄영장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민주적 민중기 위한 특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500만명에 이르는 국민의힘 당원 전체 명부를 압수수색으로 털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는 것”이라

며 “야당은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민중기 특검이야말로 수사를 범자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화문 규탄대회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당함을 호소했다.

박형수 법사위야당 간사는 중앙지법 앞 규탄대회 모두발언에서 “특검은 정당 민주주의의 요체인 정당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이를 발부했다”며 “더군다나 당원 명부는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핵심요체다. 만약 당원 명부가 어느 순간에 수사기관에 의해서 유출되고 누구에게나 공개될 수 있다면, 누가 정당에 가입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간사는 “정당 민주주의는 정당 가입과 활동의 자유, 당원 명부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가벼이 영장을 발부했다. 우리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정당이 그나마 민주적인 기능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장외에서 열던 홍보전을 펼치는 동안에도 민중기 특검팀은 국회 본청을 찾아 국민의힘과 자료 제출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광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만약 영장 집행하는 것이 의도라면 지난번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며 “설명하러 온 것이라면 좀 더 들어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李 대통령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 지키는 것”

### 제1회 을지국무회의

“지금 필요한 건 대비태세·긴장 완화  
南北 합의 가능부분부터 이행 준비  
을지연습, 한반도 긴장 고조 의도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며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질서 재편,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도 매우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서 경제, 기술, 환경 요소 등이 뒤얽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복합 위기에 대비한 통합적인 안보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안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국가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평화를 위한 남북 간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유능한

안보는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라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자주 말씀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히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들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또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부처는 기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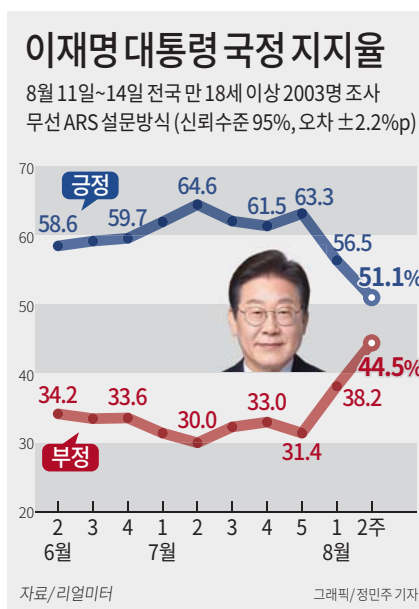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을지연습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연습계획에 반영해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 李 대통령 지지율 ‘51.1%’… 광복절 특사·양도세 논란 등 영향



민주당 지지율 39.9%… 8.5%p ↓  
국민의힘 지지율 36.7%… 6.4%p ↑  
8·22 전당대회 선거운동 변수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51.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1~14일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는 51.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4.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4.5%였다.

이는 지난주 조사에 비해 긍정평가가 5.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3%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에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56.5%)에 이어 2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 아울러 2주 만에 12%포인트가 하락한 것이기도 하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13~14일 조사) 민주당은 39.9%, 국민의힘은 36.7%로 양당의 격차가 3.1%포인트를 기록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민주당은 지난주 조사 대비 8.5%포인트 급락했고, 국민의힘은 6.4%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등의 광복절 특사 논란, 주식 양도세 논란 등이 주요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또 헌정사 첫 전(前)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과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등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 폭이 두드러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리얼미터의 해석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20~21일 당원 대상으로 모바일·자동응답(ARS) 투표를, 같은 기간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 전당대회 본경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의 응답률이 높았고, 이는 대통령·여

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2주 연속 지지율 하락 및 최저치 기록과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 목소리는 어떤 방식으로 전해오든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조사는 11~14일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다. 조사방법으로는 무선(100%) ARS을 활용했다. 정당 지지율은 13~14일 1001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